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8, No. 106, pp.83-126
<https://doi.org/10.29212/mh.2018..106.3>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중국의 대(對)주변국 군사 분쟁을 통해서 본 '적극방어' 군사전략의 특징, 함의

김재엽*

1. 서 론
2. 중국의 '적극방어' 군사전략 : 기원과 특징
3. 중국의 대(對)주변국 군사 분쟁 사례들
4. 평가와 전망
5. 결 론

1. 서 론

지구상에 존재하는 여러 국가들의 역사는 각자 크고 작은 전쟁으로 점철되어 왔다. 이는 중국(中國)도 예외가 아니다.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의 전통적인 패권(霸權) 국가로서, 오랜 역사동안 여러 황조(皇朝)들의 교체 과정에서 나타난 내전(內戰), 혹은 이민족이나 주변 국가들과의

* 한남대학교 경영·국방전략대학원 초빙교수

대립 등을 겪으면서, 수많은 전쟁을 겪었던 것이다.¹⁾ 특히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기 사이의 약 1세기 동안에는 아편전쟁(阿片戰爭)을 비롯한 서양 제국주의 세력의 군사적 침탈, 일본과의 만주사변(滿洲事變) 및 중일전쟁(中日戰爭), 그리고 중국공산당(中國共產黨, 이하 공산당)과 중국국민당(中國國民黨, 이하 국민당) 사이의 국공내전(國共內戰) 등을 치러야만 했다.

오늘날 중국은 명실상부하게 세계적인 강대국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지난 2010년부터 일본을 앞지르고 세계 2위에 올라선 경제력뿐만 아니라, 해를 거듭할수록 양적, 질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군사력도 포함되어 있다. 인민해방군(人民解放軍)으로 불리는 중국의 정규군은 총 병력 규모 203만 5,000여명(육군 97만 5,000명, 해군 24만 명, 공군 39만 5,000명, 로켓군 10만명, 전략지원부대 17만 5,000명, 기타 15만명)으로 세계 최대를 자랑한다. 또한 중국의 연간 군사비 지출액은 2017년에 1,500억 달러를 돌파했는데, 이는 미국의 뒤를 잇는 세계 2위이자 아시아 최대 규모다.²⁾

1949년 국공내전의 결과로 현재의 공산정권, 즉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이 수립된 이래, 중국은 자국의 군사전략을 ‘적극방어’(積極防禦: active defense) 전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① “적이 먼저 공격하는 것을 기다린 후에 제압한다.”는 ‘후발제인’(後發制人), ② “상대가 나를 해치지 않으면 나도 상대를 해치지 않되, 상대가 나를 해친다면 반드시 보복한다.”(人不犯我,我不犯人; 人若犯我,我必犯人)는 2개의

1) 중국은 기원전(B.C) 1100년의 서주(西周) 시대부터 신해혁명으로 청(淸) 황조가 멸망한 1911년까지의 약 3,000년 동안, 국내외에서 총 3,790회의 전쟁을 겪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연평균 약 1.3회의 전쟁이 발생했음을 뜻한다. Michael D. Swaine and Ashley J. Tellis, *Interpreting China's Grand Strategy: Past, Present, and Future* (Santa Monica, CA: RAND, 2000), pp.46~48.

2) 아울러 중국은 2017년 기준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군사비 지출의 39.7%를 점유했다. 이는 아시아 2위인 인도의 약 2.9배, 3위인 일본의 약 3.3배, 그리고 4위인 한국의 약 4.2배에 해당한다. IISS, *Military Balance 2018* (Abingdon, UK: Routledge, 2018), p.222; pp.249~250.

원칙으로 대표되고 있다.³⁾ 이를 바탕으로 중국은 자신들의 군사력 건설, 사용이 방어적이며, 평화 지향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하지만 공산정권의 수립 이후, 지난 60여년 동안 중국이 참전했던 전쟁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중국의 군사전략이 방어적이라는 주장은 상당한 의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이 기간 동안 중국은 한반도, 대만, 인도, 소련, 그리고 베트남 등의 주변 국가들과 다수의 무력(武力) 충돌을 경험해 왔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 가운데 중국의 영토, 국민이 먼저 상대방의 공격을 받은 사례는 없다시피 했으며, 중국이 상대방에게 선제공격을 가하여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이 추구하는 적극방어 군사전략이 방어 지향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국의 정치·외교적인 의지를 적극적으로 강요, 관철시키기 위한 공세적·강압적인 군사 개입의 성격에 더 가깝다는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⁴⁾

아울러 최근 수년 동안 가시화되고 있는 중국의 일방적·공세적인 대외 행보도 이러한 시각에 더욱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중국은 2010년대에 들어서 일본, 동남아시아 제국(諸國)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과의 정치·외교적인 갈등 과정에서 전례 없이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는 중이다.⁵⁾ 2013년 11월 동중국해(東中國海) 일대에 대한 방공식별구역(ADIZ: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의 선포, 남중국해(南中國海)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공섬 건설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현상들이 서태평양 일대에 대한 중국의 군사력, 특히 해·공군력의 투사(投射) 능력이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 이루어지고

3) 張萬年, 『當代世界軍事與中國國防』(北京: 軍事科學出版社, 2002), p.181.

4) 서진영, 『21세기 중국외교정책: '부강한 중국' 과 한반도』(서울: 폴리테이아, 2006), p.120.

5) 김재철, "중국의 공세적 외교정책," 『한국과 국제정치』, 제28권 제4호, 2012, pp.35~40. <http://uci.or.kr/G704-000296.2012.28.4.007>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다음의 3가지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첫째, 중국의 적극방어 군사전략이 형성된 배경을 살펴보고, 그 특징들을 분석함으로써 방어성 여부를 검증할 것이다. 둘째, 중국이 현재의 공산정권이 수립된 이래 주변 국가들과 벌였던 군사 분쟁의 원인 및 전개 양상을 고찰하고, 이들 분쟁에서 적극방어 군사전략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셋째, 현재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의 발전이 적극방어 군사전략의 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 것인지를 평가하면서, 그 결과가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질서에 야기할 수 있는 전략적인 영향을 전망할 것이다.

2. 중국의 ‘적극방어’ 군사전략: 기원과 특징

가. 적극방어 군사전략의 형성 배경

중국의 적극방어 군사전략이 수립, 형성된 배경은 다음의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국공내전에서 공산당을 승리로 이끌면서 중국을 석권한 최고 지도자 마오쩌둥(毛澤東)이 주창, 제시했던 전쟁관(觀)과 군사사상이다. 둘째는 1920년대 후반부터 1949년까지의 20여년 동안, 공산당이 중일전쟁과 국공내전 등의 오랜 정치·군사적인 투쟁을 통해 실천하고, 그 효과를 입증해낸 군사상의 경험들이다. 그리고 셋째는 중국 특유의 지정학적 환경이다.

마오쩌둥의 전쟁관과 군사사상은 당대의 공산주의 혁명 사상뿐만 아니라, 동서양의 군사 고전(古典)들로부터 폭넓게 영향을 받은 결과물이었다. 그는 어린 시절 『손자병법』(孫子兵法)을 탐독하면서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것’(不戰而屈人之兵), ‘적의 강점을 회피하고 약점을 공략

하는 것'(兵之形避實而擊虛)의 중요성을 배웠다. 또한 1920년대에는 중국 공산주의 운동에 동참하면서 자연스럽게 카알 마르크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그리고 블라디미르 레닌 등 공산주의 혁명가들의 사상, 이론들을 접하게 되었다. 이는 마오쩌둥이 혁명과 전쟁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공산주의 혁명은 계급적 적대 세력에 대해 완전한 승리를 목적으로 하는 '절대적 형태의 전쟁'을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을 수용하는 계기가 되었다.⁶⁾ 널리 알려진 "권력은 무력으로부터 나온다." (檣櫓子裡面出政權)라는 마오쩌둥의 말도 이를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마오쩌둥은 19세기 독일의 군사전략가 카알 폰 클라우제비츠가 제시한 군사전략 이론을 통해, 중국을 공산화하기 위한 혁명전쟁의 수행 전략을 수립 및 발전시킬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① 전쟁에서 군대와 정부, 민중의 삼위일체 가운데 민중의 역할을 강조하는 '인민전쟁'(人民戰爭) 이론, ② 공격에 대한 방어의 전략적인 우위, ③ 적의 병력을 무게중심(center of gravity)으로 규정하여 공략, 격멸하는 섬멸전(殲滅戰)의 강조, 그리고 ④ 방어의 성공을 결정짓는 수단으로서 반격의 중요성 등을 수용했던 것이다.⁷⁾

마오쩌둥을 위시한 공산당이 치렀던 정치·군사적 투쟁들도 중국의 적극방어 군사전략이 형성되는 데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당초 국민당과 공산당은 중국 각지의 군벌(軍閥)들과 맞서기 위해 1924년 제1차 국공합작(國共合作)을 맺었지만, 이듬해 국민당의 지도자 쑨원(孫文)이

6) 박창희, 『현대 중국 전략의 기원: 중국혁명전쟁부터 한국전쟁 개입까지』(서울: 플래닛미디어, 2011), p.76; 박창희, 『중국의 전략문화 : 전통과 근대의 부조화』(파주: 한울아카데미, 2015), pp.182~186.

7) 마오쩌둥은 공산당의 근거지를 내륙의 옌안(延安)으로 옮긴 1930년대 중·후반에 중국어로 번역된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戰爭論)을 읽으면서 자신의 군사전략을 가다듬었으며, 공산당 내부에도 이를 연구하는 소(小)조직을 편성했다. 이후 마오쩌둥은 타계하기 1년 전인 1975년 헬무트 슈미트 서독 수상과의 접견에서도 『전쟁론』을 거론하여 화제가 되었다. 박창희, 『현대 중국 전략의 기원: 중국혁명전쟁부터 한국전쟁 개입까지』, pp.76~78; 국방군사연구소, 『中國軍事思想史』(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6a), p.275.

타계하자 국공 양측의 갈등이 표면화되었고, 결국 1927년 4월부터 국민당이 공산당에 대한 숙청, 탄압을 본격화하면서 국공합작은 깨어졌다. 그해 8월 1일에는 난창(南昌)에서 주더(朱德), 저우언라이(周恩來) 등이 지휘하는 3만명 규모의 공산당원들이 무장 봉기를 일으켰으며, 10월에는 마오쩌둥이 주도하는 최초의 공산당군(통칭 ‘홍군’(紅軍)) 부대가 징강산(井岡山)으로 이동했다. 이후 타 지역의 공산당 무장 병력들도 차례로 마오쩌둥과 합류하였고, 1934년까지 약 30만명의 공산당군 병력이 중국 동남부 장시(江西), 푸젠(福建) 성(省) 사이의 산악지대에 마련된 공산당의 거점 지역으로 집결했다.⁸⁾

당시 국민당은 장제스(蔣介石)의 지도 아래 1928년 말에 중국을 사실상 통일하였고, 1930년 12월부터는 장시 성 일대를 중심으로 공산당에 대한 본격적인 소탕 작전(통칭 ‘소공전’(掃共戰))을 시작했다. 공산당군은 1931년 9월까지 3차례 감행된 국민당군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격퇴하였다. 이는 국민당군을 자신들의 근거지 이내로 깊숙이 유인해 병력 분산과 피로를 강요하고, 지속적으로 기습 및 교란하여 세력을 소모시키면서, 퇴각할 때 추격하여 격멸시킨다는 마오쩌둥의 유격전(遊擊戰) 중심 전략이 실효를 거둔 결과였다.⁹⁾ 그러나 왕밍(王明) 등 소련 유학파들이 공산당의 주도권을 차지하면서, 공산당군은 대도시로 진출하여 국민당군을 정면 공격하는 전략으로 전환했다. 이에 공산당군은 1932년 국민당군의 4번째 소탕작전에서 큰 타격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1933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5번째 소탕작전으로 궤멸적인 패배에 직면하였다.

8) 오늘날 중국은 1927년 난창에서의 무장 봉기가 일어난 8월 1일을 ‘건군절’(建軍節)로 기념하고 있다. 국방군사연구소, 『中國人民解放軍史』(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8), pp.13~17; pp.33~35.

9) 당시 국민당군의 소탕 작전에 대한 마오쩌둥의 전략은 “적이 진격하면 후퇴하고, 적이 머무르면 교란하고, 적이 지치면 공격하고, 적이 후퇴하면 추격한다.”(敵進我退, 敵駐我擾, 敵疲我打, 敵退我追)는 소위 ‘16자 전법’(十六字訣)으로 알려져 있다. 위의 글, pp.39~43.

결국 공산당군은 1934년 10월부터 마오쩌둥을 중심으로 국민당군의 추격을 피하여 무려 9,000km가 넘는 거리를 퇴각하였고, 1936년에야 서북부 내륙의 산시(陝西) 성 옌안에 새로운 근거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대장정'(大長征)이다. 마오쩌둥은 대장정을 계기로 공산당 내에서의 지도적 위상을 확고히 했으며, 한편으로는 자신의 군사전략을 보완 및 발전시키는 데 주력했다. 대장정의 완수를 전후로 쓴 『군사전략 문제에 관한 결정』(關於軍事戰略問題的決議, 1935년)과 『중국 혁명전쟁의 전략 문제』(中國革命戰爭的戰略問題, 1936년), 그리고 국민당과의 제2차 국공합작 성립, 중일전쟁이 본격화된 시기에 발표한 『항일 유격전쟁의 전략 문제』(抗日游擊戰爭的戰略問題, 1938년)와 『지구전을 논함』(論持久戰, 1938년) 등의 저작이 대표적이다.¹⁰⁾

이들 저작에서 마오쩌둥은 공산당이 일본, 국민당 등의 정치·군사적인 강자를 상대로 승리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3단계에 걸친 지구전(持久戰)의 수행을 제시했다. 먼저 제1단계는 침공해오는 적의 군사력에 정면으로 맞서는 대신, 후퇴하면서 적을 유인하는 '전략적 퇴각'(戰略防禦)다. 다음으로 제2단계는 유인된 적의 군사력을 고착 및 분산, 소모시키고, 반격을 준비하는 '전략적 대치'(戰略相持)다. 그리고 제3단계는 약화된 적의 군사력을 결정적으로 분쇄, 격멸하는 '전략적 반격'(戰略反攻)이다.¹¹⁾ 마오쩌둥과 공산당은 중일전쟁뿐만 아니라, 이후 1946년에 재개된 국민당군과의 국공내전에서도 이러한 전략을 실행했으며, 그 결과 초기의 세력 열세를 역전시키면서 마침내 1949년 국민당과의 혁명전쟁에서 승리하고, 중국 본토를 석권하는 데 성공했던 것이다.

한편으로는 중국 특유의 지정학적 환경도 적극방어 군사전략이 형성되는 데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주지하듯이 중국은 세계 3위 규모인 총면적 약 960만km²의 광대한 영토를 차지한다. 그러나 동시에 2만km가

10) 국방군사연구소, 『中國軍事思想史』, pp.280~281.

11) 황병무, 『新中國軍事論』(서울: 법문사, 1992), pp.115~116; 박창희, 『중국의 전략문화: 전통과 근대의 부조화』, pp.239~240.

넘는 긴 국경선에 걸쳐, 사방으로 다수의 국가들과 대치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주변 국가를 비롯한 적대 세력들로부터,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받을 수 있는 방어상의 취약성에 직면하고 있음을 뜻한다.¹²⁾ 특히 19세기 후반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약 1세기 동안 계속된 서양 제국주의 열강, 일본 등의 군사적 침탈들은 중국의 안보 위협 인식을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국공내전에서 마오쩌둥의 공산정권이 승리를 확정지을 당시, 국제질서는 이미 미국 중심의 자유 진영과 소련 중심의 공산 진영이 서로 이념적으로 대립하는 냉전(冷戰) 체제로 진입하고 있었다. 그 결과, 새로이 공산 진영의 일원이 된 중국도 국경 주변에 이념상으로 적대 관계인 국가들과 대치하는 상황에 놓였고, 이들 국가가 미국 등의 지원을 받아 군사적인 위협, 혹은 침공을 가할 가능성을 우려하게 되었다.¹³⁾ 이는 중국이 영토 주변 지역에서의 정치·군사적인 안정이 갖는 안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군사력의 사용을 정당화하는 근거를 제공하게 되었다.

나. 적극방어 군사전략의 주요 특징

전통적으로 중국은 자신들의 적극방어 군사전략이 방어적인 성격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외부의 침략을 받거나, 국가이익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먼저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12) 육상 국경으로 중국과 인접한 국가의 수는 총 15개국이며, 이는 러시아 다음으로 많은 세계 2위다. 張萬年, 『當代世界軍事與中國國防』, pp.125~127.

13) 구체적으로 중국은 ① 주한미군이 배치된 한반도, ② 국공내전 직후 국민당이 후퇴한 대만, 그리고 ③ 베트남과 필리핀을 위시한 동남아시아 등지를 경유하여 군사적 침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당시 중국은 수도 베이징(北京)과 가까운 북부에서는 최대한 방어선을 고수하고, 남부에서는 적을 유인 후에 분쇄하는 '북정남방(北頂南防) 개념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다. 謝之鵬, "中共積極防禦軍事戰略發展與意涵," 『陸軍學術雙月刊』, 第52卷 第549期, 2016, p.36.

다.¹⁴⁾ 보다 구체적으로는 ① 적이 먼저 일으킨 전쟁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만 군사력을 사용하는 '명분 확보'(有理), ② 방어상의 목적 달성에 맞추어 군사력 사용의 공간, 시간을 제한시키는 '절제'(有節)를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¹⁵⁾ 이는 평·전시에 군사력의 사용, 동원을 결정 및 실행하는 과정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고, 대내외적으로 전쟁 수행에 관한 정치·외교적인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다. 1955년 4월 공산당 중앙서기처에서 '침략전쟁에 맞서기 위한 준비와 작전계획에 관한 문제'(反侵略戰爭準備和作戰計畫問題)가 논의될 당시, 마오쩌둥이 "우리의 전략방침은 적극방어다. 절대로 먼저 전쟁을 시작하지 않는다."(我國的戰略方針是積極防禦, 決不是先發制人)라는 지침을 제시한 것도 이를 반영한다.¹⁶⁾

그러나 한편으로 중국은 각 전투 현장들(戰役)에서 벌어지는 개별 작전들이 공세적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특정 전투가 벌어지는 제한적·국지적인 공간 이내에서는 적보다 최대한의 세력 우위를 집중 및 확보하고, 적의 전투력을 결정적으로 분쇄 및 제압함으로써, 신속하게 승리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공내전의 재개 1년만인 1947년 12월 마오쩌둥이 제시한 소위 '10대 군사원칙'(十代軍事原則)에도 포함된 ① "분산·고립된 적을 먼저 공격하고, 이후 집중된 강력한 적을 공격한다"(先打分散和孤立之敵, 後打集中和強大之敵), ② "적 병력의 섬멸이 가장 중요한 목표다"(以殲滅敵人有生力量為主要目標), ③ "압도적으로 우세한 병력을 집중하여 적을 포위하고, 완전히 섬멸한다"(集中絕對優勢兵力, 四面包圍敵人力求全殲, 給敵人殲滅性的打擊), ④ "기동을 통해 적을 섬멸한다"(力求在運動中殲滅敵人) 등에서도 나타난다.¹⁷⁾

14) 彭光謙, 『中國國防』(北京: 五洲傳播出版社, 2004), p.31.

15) 張萬年, 『當代世界軍事與中國國防』, p.182.

16) 胡哲峰, "建國以來若干軍事戰略方針探析," 『當代中國史研究』, 第7卷 第4期, 2000, p.22.

일찍이 마오쩌둥은 “적극방어란 공세적이며, 결전을 지향하는 방어다. 전적으로, 단순히 방어에만 의존하는 소극방어는 가짜 방어이며, 반격과 진격을 포함하는 적극방어야말로 진정한 방어다.”(積極防禦 又叫攻勢防禦, 又叫決戰防禦。消極防禦, 又叫專守防禦, 又叫單純防禦。消極防禦實際上是假防禦, 只有積極防禦才是真防禦, 才是為了反攻和進攻的防禦)라고 역설한 바 있다.¹⁸⁾ 적의 침략으로부터 스스로의 영토, 국민을 지키는 점에서 방어적인 목적을 지향하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군사력의 사용은 적극적·공세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는 ① 전략상의 방어와 전투 현장에서의 공격(戰略上的防禦與戰役戰鬪上的進攻), ② 전략상의 지구와 전투 현장에서의 속결(戰略上的持久與戰役戰鬪上的速決), 그리고 ③ 전략상의 내선작전과 전투 현장에서의 외선작전(戰略上的內線作戰與戰役戰鬪上的外線作戰)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공격과 방어를 변증법적으로 통일시키는 것이다.¹⁹⁾ 중국은 이를 통해 자신보다 우월한 적과 싸워 이기고, 최종적으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여기서 중국의 적극방어 군사전략에서 강조하는 ‘방어상의 목적’이 과연 자국 영토, 국민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억지, 격퇴하는 것으로 한정되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56년 3월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평더화이(彭德懷) 당시 국방부장은 중국의 기본 국방전략 방침으로서 적극방어 군사전략을 설명하며, “우리의 군사적 역량을 꾸준히 강화하고, 국제적인 통일전선 활동을 계속 확대하여 정치·군사적으로 전쟁의 발생을 저지, 지연시키는 것.”(不斷地加強我國的軍事力量, 繼續擴大我國的國際統一戰線活動,

17) 국공내전 당시 장제스의 국민당군은 주요 대도시의 점령, 고수에 집착하여 주력 부대들을 분산된 상태로 방치하였고, 마오쩌둥의 공산당군은 이들을 각개격파 및 섬멸하여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었다. 국방군사연구소, 『中共軍의 戰略戰術 變遷史』(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6b), pp.311~315.

18) 황병무, 『新中國軍事論』, p.115.

19) 張萬年, 『當代世界軍事與中國國防』, p.177.

從軍事上和政治上來製止或推遲戰爭的爆發)이라고 밝혔다. 2년 후인 1958년 7월의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는, 적극방어 군사 전략을 “미수복된 국토를 탈환하고, 영토를 침범하거나 평화를 위협하는 적을 방어 단계에서 격파하며, 반격을 통해 적을 격퇴 및 섬멸하여 침략의 재발(再發)을 막는다.”(對於我們未解放的國土, 必須堅決解放; 對於進犯我國領土、破壞遠東和世界和平的敵人, 除了必須在防禦階段加以擊敗以外, 還必須適時地轉入反攻和追擊, 一直到把侵略者趕回他的本土, 堅決、乾淨、徹底、全部消滅之, 解放那裡的人民, 以便使侵略永遠不再發生)는 내용으로 규정했다.²⁰⁾

이러한 내용들은 중국이 ‘자국의 영토, 국민의 안전에 대한 외부 세력의 직접적인 위협을 격퇴’하는 원론적인 의미의 자기 방어(自衛)뿐만 아니라, 이를 넘어서는 목적과 조건에서도 군사력을 동원,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① 국공내전 이후에도 중국의 지배권에서 벗어나 있는 대만과의 갈등, ② 주변 국가들과의 국경 및 영유권 분쟁, 그리고 ③ 자국 영토 주변에서 발생하는 대규모의 정치·군사적인 분쟁, 불안정 등이 포함된다. 중국이 이들 상황을 자국의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확대 해석 및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영토 밖으로의 군사력 사용을 비롯한 공세적인 군사력의 운용을 정당화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3. 중국의 대(對)주변국 군사 분쟁 사례들

중국은 1949년 공산정권이 수립된 이후, 지난 60여년 동안 주변 국가들과 다수의 군사 분쟁을 경험해 왔다. 1992년까지를 기준으로 보면,

20) 胡哲峰, “建國以來若干軍事戰略方針探析,” p.23.

43년 동안 118차례에 걸쳐 타국에 무력 사용을 위협하거나, 이를 실행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²¹⁾ 이는 그만큼 중국이 자국의 정치·외교적인 의지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군사력을 동원하는 데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중국의 적극방어 군사전략은 이러한 주변 국가들과의 군사 분쟁에서 어떻게 실행, 구현되어 왔는가?

가. 6.25 전쟁(1950~1953년)

중국은 6.25 전쟁의 발발로 미군 병력이 한반도에 투입되자 한반도와의 국경 지역에 ‘동북변방군’(東北邊防軍)을 편성, 배치했다. 이후 미국 주도의 국제연합군(이하 UN군)과 한국군이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1950년 9월 말 서울을 수복하였고, 패색이 짙어진 북한은 소련에 김일성, 박헌영 공동 명의의 긴급 서한을 보내어 공산권 국가들의 참전을 요청했다. 소련은 북한의 참전 요청을 전달받은 10월 1일, 주중(駐中) 소련대사를 통해 중국에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파병을 요청하는 전문(電文)을 보냈다. 이에 중국도 10월 2일 마오쩌둥을 포함한 공산당 중앙정치국 확대회의를 개최하여 한반도에서의 파병을 논의하기 시작했다.²²⁾

당초 공산당 내부에서는 저우언라이, 류사오치(劉少奇), 린바오(林彪) 등을 중심으로 한반도 참전에 회의적인 인식이 높았다. 공산정권이 수립된 지 불과 1년밖에 안된 상황에서, 초강대국인 미국과 직접 군사적으로 대결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높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마오쩌둥

21) 연평균 수치로는 약 2.7차례에 달한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미국이 연평균 약 3.9차례의 군사 개입을 실시한 것보다는 적지만, 연평균 약 1.7차례였던 소련을 비롯한 다른 강대국들보다 높은 수준이다. Alastair Iain Johnston, “China’s 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 Behaviour 1949–1992: A First Cut at the Data”, *China Quarterly*, No. 153, (1998), pp.1~30.

22) 박동찬 편저, 『한권으로 읽는 6.25 전쟁』(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6), pp.243~244.

은 중국과 국경을 인접하는 한반도 전체가 미국의 정치·군사적인 영향권에 편입된다면, 머지않아 중국도 미국의 침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순망치한'(唇亡齒寒: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의 논리를 내세워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파병을 강력히 주장했다. 여기에 평터화이까지 마오쩌둥의 주장에 찬동하고 나서면서, 마침내 10월 5일 중국은 한반도에 참전할 것을 결정하였다.²³⁾

UN군이 38선을 돌파하여 북진에 본격 돌입하자, 10월 8일 마오쩌둥은 동북변방군에 한반도 출병을 명령했으며, 북한에도 이를 통보했다. 동북변방군은 '중국 인민지원군'(中國人民支援軍)으로 개칭하였고, 평터화이가 사령관에 임명되었다.²⁴⁾ 중국군은 한국군과 UN군의 평양 입성을 전후로 한 10월 18~19일에 압록강을 건너 한반도에 진입하기 시작했는데, 이들 병력은 6개 군단을 포함한 총 20만명 이상의 규모였다.²⁵⁾ 한국군과 UN군은 10월 25일 평안북도 운산에서의 전투를 통해 중국군 병력이 한반도에 투입되었음을 처음으로 인지했지만, 그것이 대규모의 참전이라는 것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중국군은 한국군과 UN군 병력이 자신들의 참전을 모른 채 동·서부 전선으로 나뉘어 북진하고 있음을 주목했고, 이들 병력을 기습적으로 포위 및 섬멸하는 데 주력했다. 그리하여 압록강 일대까지 진격하기 위해 깊숙이 북진한 한국군, UN군 부대들이 다수의 중국군으로부터 기

23) 박창희,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 결정과 군사전략 목표", 『軍史』, 제48호, 2003, pp.76~79. <http://uci.or.kr/G704-001528,2003.,48,002>

24) 중국 공산정권의 정규군은 국공내전 기간인 1947년부터 현재의 '인민해방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동북변방군을 비롯하여 6.25 전쟁에 출병한 중국군 병력은 '자발적으로 참전한 민간인들로 구성된 의용군'으로 위장하고, 중국 정부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부인하기 위해 '인민지원군'으로 명명되었다. 중국이 자신들의 6.25 전쟁 참전을 '항미원조'(抗美援朝: 미국에 대항하고, 조선(즉, 북한)을 돕는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동찬 편저, 『한권으로 읽는 6.25 전쟁』, p.245.

25) 당시 중국군은 주로 야간을 틈타 이동했으며, 산악 지역에 매복하여 자신들의 규모, 위치가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이는 한국군과 UN군에 대한 기습 효과를 극대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위의 글, pp.248~249.

습을 받으면서 큰 타격을 입었다. 11월 5일까지 계속된 중국군의 첫 공세로 한국군, UN군은 청천강으로 밀려났다. 이후에도 한반도에 투입된 중국군 병력의 규모는 더욱 늘어났고, 그 규모는 9개 군단을 포함한 총 38만명에 달하였다.²⁶⁾

이처럼 증강된 병력 규모를 기반으로, 중국군은 11월 25일에 공세를 재개했다. 서부에 6개 군단, 동부에는 3개 군단을 투입하여 각 전선에서 한국군과 UN군을 압도적으로 분쇄, 섬멸하려 했던 것이다.²⁷⁾ 예상을 훨씬 넘어선 중국군의 대규모 공세에 직면한 한국군, UN군은 3일만인 11월 28일에 후퇴를 결정했고, 12월 4일에는 평양이 북한·중국 공산군에게 넘어갔다. 12월 중순에는 한국군, UN군이 38선으로 후퇴하여 전세가 원점으로 돌아가기에 이르렀다. 뒤이어 12월말 재차 실시된 중국군의 공세로 1951년 1월 4일 서울이 공산군에 함락되었고, 한국군과 UN군이 북위 37도선까지 후퇴하면서 중국군의 기세는 절정에 달하였다.

하지만 중국군은 서울 점령을 기점으로 공세를 지속할 능력의 한계에 이르렀다. 계속되는 진격으로 보급선이 길어져 제공권을 장악한 UN군의 공중 폭격에 더욱 취약해졌고, 그만큼 전력의 인적·물적 손실도 누적, 심화되고 있었던 것이다.²⁸⁾ 여기에 새로이 미 육군 제8군의 사령관이 된 매튜 리지웨이가 공산군을 겨냥하여 화력 중심의 몰살 작전을 지시하면서, 중국군은 보다 심각한 전력 피해를 강요받았다. 그 결과 전열을 재정비한 한국군, UN군이 1월 25일 반격에 나서면서

26) 위의 글, pp.261~262.

27) 이러한 중국군의 전술은 상대방의 취약점에 대규모의 병력을 집중시켜 전열을 무너뜨리고, 다수의 방향에서 포위함으로써 상대 병력을 섬멸시키는 ‘일점양면’ (一點兩面) 전술로 불린다. 이에 따라 미군보다 전력이 미약했던 한국군 부대들이 중국군의 집중 공격을 받으면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 국방군사연구소, 『中共軍의 戰略戰術 變遷史』, pp.436~438.

28) Larry M. Wortzel, “China’s Foreign Conflicts Since 1949,” in David A. Graff and Robin Higham eds, *A Military History of China* (Lexington, KY: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2012), p.273.

중국군 등 공산군은 한강 인근으로 후퇴했다. 중국군은 2월 11일부터 경기도 양평군 지평리와 강원도 횡성군 등지에서 한국군, UN군에 대한 공세를 시도했지만, 7일 만에 격퇴되었다. 이후 3월 15일에는 한국군과 UN군이 다시 서울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고, 4월에 이르러서는 공산군을 38선 이북으로 몰아냈다.

중국군의 마지막 공세는 1951년 4월 하순과 5월 중순에 걸쳐 감행되었다. 먼저 38선에서 한국군, UN군 부대들을 분쇄 및 격멸하고, 서울을 다시 장악하는 등 전쟁의 주도권을 탈취하려는 목적으로 4월 22일 임진강 등 서부전선 일대에서 공세를 개시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공세는 우세한 화력을 앞세운 UN군의 방어에 부딪혔고, 중국군은 8일 만인 4월 30일 패퇴하였다. 5월 16일부터는 중국군이 강원도 인제군 현리 등지의 중·동부전선에서 재차 공세를 실시하여 한국군 제3군단을 붕괴시키는 등 심각한 타격을 입히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군, UN군이 후속 반격에 성공하면서 중국군의 공세는 5월 22일에 종료되었다.

이들 공세의 실패를 계기로, 중국군은 한국군과 UN군을 압도, 제압하기 위한 공세적 군사작전을 포기하였고, 한반도에서의 전선(戰線)도 교착 상태에 놓였다. 그리하여 1951년 7월 UN군과 공산군 양측의 휴전 협상이 시작되면서 중국군은 38선을 사이에 둔 채 한국군, UN군과의 소모적인 고지전에 주력하였으며, 2년 후 휴전이 성립될 때까지 이를 지속했다. 중국은 6.25 전쟁 참전으로 전사자 13만여명을 포함, 총 100만명에 가까운 인명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²⁹⁾ 그럼에도 중국은 한반도에의 출병을 통해 한국군과 UN군의 북진통일을 좌절시켰고, 한반도 이북을 자국의 국경 안정을 위한 완충지대로 유지하는 전략적 성과를 거두었다.

29) 박동찬 편저, 『한권으로 읽는 6.25 전쟁』, p.495.

나. 대만해협 도서(島嶼) 전투(1950년대)

비록 중국 본토에서의 국공내전은 1949년 공산당의 승리로 끝났지만, 패배한 국민당도 대만으로 후퇴하여 여전히 건재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공산당과 국민당 양측의 이념·군사적인 대립, 분쟁은 중국 본토와 약 180km 떨어진 대만해협을 경계로, 1950년대에도 지속되었다. 당시 중국 공산정권은 ‘대만 해방을 통한 통일 대업의 완수’를, 대만의 국민당은 ‘본토 수복’을 각자의 대의명분으로 내세웠다. 한편으로는 미국이 6.25 전쟁을 계기로 대(對)대만 방위 공약의 강화를 천명했고,³⁰⁾ 장제스를 위시한 국민당 정부도 이를 바탕으로 대만 내부에서의 정치·경제·사회적인 안정, 통제 체제 확립에 주력하였다. 이는 중국 공산정권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 정복하는 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 결과 1950년대 중국, 대만 양안의 무력 충돌은 주로 대만해협의 도서 지역들을 대상으로 벌어지게 되었다.

1953년 한반도에서의 휴전 성립으로 3년 동안 계속되어 온 6.25 전쟁이 중단되자, 이제 중국은 다시 대만을 겨냥한 군사적 대결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중국은 1954년 5월부터 저장(浙江) 성과 인접한 이장산다오(一江山島)에 배치된 대만군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대만은 다수의 군함, 전투기를 보내어 지원에 나섰지만,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양적으로 우세한 해·공군력을 배치 및 투입할 수 있었던 중국군에게 작전 수행의 주도권을 빼앗겼다. 그리하여 해를 넘긴 1955년 1월 18일, 중국은 이장산다오에 상륙을 감행하여 약 4일 만에 점령을 완료했다.³¹⁾ 1개월 후에는 다천다오(大陳島)를 비롯한 인근 도서 지역의 대만군 병력도 후퇴해야 했다.

30) 미국은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해군 제7함대를 대만해협으로 파견했고, 대만에 무기 원조를 재개했으며, 1953년 12월에는 대만과 공동방어조약을 체결하여 정식 군사동맹 관계를 맺었다. 신승하, 『당대중국: 중화인민공화국과 대만』 (서울: 대명출판사, 2006), pp.106~108.

31) 국방군사연구소, 『中國人民解放軍史』, pp.202~203.

이장산다오의 점령에 성공한 중국은 진먼다오(金門島)를 노리기 시작했다. 진먼다오는 푸젠 성에서 불과 10km 이내에 위치하며, 마주다오(馬祖島)와 함께 대만의 국민당 정부가 국공내전의 패배 이후에도 중국 본토 인근에서 통제권을 확보, 유지하고 있던 대표적인 지역이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대만은 진먼·마주다오에 전체 육군 병력의 1/3에 해당하는, 8만명 이상의 병력을 배치하여 본토 수복을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하려 했다.³²⁾ 이에 중국은 대만이 동남부 지역에 군사적 위협을 가하려는 것을 저지하고, 장차 대만을 병합하기 위한 정치·군사적인 주도권의 확보, 강화를 목적으로 진먼다오에 대한 공략을 계획하였던 것이다.³³⁾

1958년 7월에 들어서 중국은 진먼다오 공격을 위한 준비를 본격화했다. 당시 미국이 이라크에서 발생한 반(反)서방 성향의 쿠데타에 맞서 요르단, 레바논에 병력을 파견하여 대만해협 유사시에 개입할 여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8월 23일, 중국군은 푸젠 성 연안 지역에 배치된 340여문의 야포를 동원하여 진먼다오에 대규모의 포격을 개시했다. 이날 하루 동안에만 무려 5만 7,000발이 넘는 포탄이 진먼다오로 발사되었다.³⁴⁾ 중국은 이후에도 연일 진먼다오를 겨냥하여 다수의 포격을 지속했고, 포격 5일째인 8월 27일에는 항복을 권고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진먼다오에 배치된 대만군은 중국의 압도적인 포격 속에서도 병력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반격을 가하였다. 여기에 1954~1955년의

32) Bernard D. Cole, *Taiwan's Security: History and Prospects* (London, UK: Routledge, 2006), p.23.

33) 중국은 이미 1949년 10월의 구닝터우(古寧頭) 전투, 1950년 7월의 다단다오(大膽島) 전투를 통해 진먼다오 공략을 시도한 바 있었지만, 모두 대만군에게 패퇴했다. 서상문, “중국 國·共내전시기 金門전투와 그 역사적 의의,” 『中國近現代史研究』, 제22집, 2004, pp.62~65. <http://uci.or.kr/G704-001440.2004..22.004>

34) 嚴紀民, “回顧「八二三砲戰」堅苦卓絕的教戰精神, 開啟兩岸和平的新世紀,” 『陸軍學術雙月刊』, 第45卷 第506期, 2009, p.31.

이장산다오 전투때와는 달리, 진먼다오 주변에서 벌어진 다수의 해전, 공중전도 대만이 우세를 차지하였다.³⁵⁾ 뿐만 아니라 미국도 중국의 포격이 시작된 지 하루만인 8월 24일부터 다수의 항공모함, 군함, 전투기, 그리고 상륙 부대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전력을 대만해협으로 집결시켜 중국을 견제했다.³⁶⁾ 이로써 대만은 진먼다오 일대에서의 제해·제공권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고, 중국의 포격이 진먼다오에 대한 상륙, 점령으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막았다.

결국 중국은 전투가 시작된 지 40여일 쯤이 되던 10월 6일에 일방적으로 포격 중지를 발표하였고, 10월 말에 이르러서는 “홀수 날에만 포격할 것”(單打雙不打)임을 선언했다.³⁷⁾ 이로써 진먼다오를 놓고 치열하게 벌어졌던 중국과 대만의 전투는 중지되었다. 당시 중국군은 전투기간 동안 진먼다오에 총 44만 4,000발이 넘는 포격을 가했지만, 한편으로는 대만과의 해전 및 공중전에서 전투함정 28척, 전투기 45대를 잃는 피해를 입었다.³⁸⁾

다. 중국·인도 국경 전쟁(1962년)

본래 중국과 인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대표적인 신흥 독립국가로서 1955년 인도네시아 반등에서 개최된 ‘아시아·아프리카 회의’(Asian-African Conference, 통칭 ‘반등 회의’)를 주도하며 우호적인

35) 특히 대만 공군의 전투기는 1958년 9월 24일에 미국제 단거리 공대공미사일로 중국 전투기를 격추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공대공미사일을 사용하여 전투기를 격추한 사상 최초의 사례로 기록되었다. 국방군사연구소, 『中國人民解放軍史』, pp.206~207; Cole, *Taiwan's Security: History and Prospects*, p.23.

36) 이규원, “중국의 대만 도서지역 포격사건에 대한 미국의 억제전략 분석,” 『국방정책연구』, 제27권 제2호, 2011, pp.210~211. <http://uci.or.kr/G704-001646.2011.27.2.001>

37) 이후 중국은 약 20년 동안 진먼다오에 이틀 간격으로 상징적인 포격을 계속하였고, 미국과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한 1979년 1월 1일을 기하여 중지했다. 신승하, 『당대중국: 중화인민공화국과 대만』, p.258.

38) 嚴紀民, “回顧「八二三砲戰」, 堅苦卓絕的教戰精神, 開啟兩岸和平的新世紀,” p.32.

관계를 맺어왔다 이보다 앞선 1954년에는 양국이 ① 평화적인 공존, ② 상호 주권 및 영토의 존중, ③ 내정 불간섭, ④ 불가침, ⑤ 호혜적인 협력 등을 포함하는 '평화공존 5원칙'(和平共處五項原則)에 입각하여 외교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는 데 합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양국은 2,000km에 걸친 국경 가운데 히말라야 산맥 일대를 포함하는 일부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확정짓지 못했고, 이는 잠재적인 분쟁 요인으로 남겨졌다.³⁹⁾ 여기에 1951년부터 중국의 점령 아래에 놓인 서남부 티벳의 신정(神政)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1959년 3월 인도로 망명하면서, 중국과 인도 양국의 갈등은 더욱 고조되었다.

1962년에 들어서 중국과 인도 사이의 군사 분쟁 가능성은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그해 7월 중국이 서북부의 신장(新疆) 자치구와 티벳을 연결하기 위해 건설하려는 보급로가 인도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라다크 지역을 통과했는데, 이에 양국간의 소규모 무력 충돌이 발생한 것이었다. 인도는 맥마흔 선 일대의 양국간 동부 국경 지대에서도 6월을 전후로 감시 초소를 추가 설치하고, 일부 병력이 맥마흔 선보다 이북으로 배치되었다.⁴⁰⁾ 9월에 들어서는 이를 저지하려는 중국과 인도 양국의 병력이 소규모 충돌을 반복했다.

중국은 인도와의 분쟁이 단순한 국경 지대의 영유권 대립을 넘어, 티벳에 대한 자신들의 지배권이 위협받고, 더 나아가 티벳이 분리 독립한 후 인도의 영향권에 편입되어 영토 주권과 국가안보가 심각하게 손상될 가능성을 우려하게 되었다.⁴¹⁾ 이에 중국은 인도에게 국경 확정,

39) 인도는 지난 1914년 중국의 신생 공화정부(즉, 중화민국(中華民國))와 인도를 식민 지배했던 영국이 '심라 회의'에서 설정한 통칭 '맥마흔 선'(McMahon Line)을 합법적인 국경선으로 주장했지만, 중국 공산정권은 그보다 150km 남쪽으로 내려간 히말라야 산맥 능선을 국경선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양국이 각자 주장하는 국경선 사이의 면적은 9만km²에 달했다. 국방군사연구소, 『中國人民解放軍史』, p.213.

40) Wortzel, "China's Foreign Conflicts Since 1949," pp.275~276.

41) 서상문, 『중국의 국경전쟁 (1949~1979)』(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3), pp.385~387.

티벳 지배에 대한 의지를 표출, 관철하기 위해 대대적인 군사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는 판단에 도달하였다. 때마침 같은 시기에 발생한 쿠바 미사일 위기로 미국, 소련 두 초강대국의 정면 대립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중국은 국제사회의 개입을 우려하지 않고서 인도와의 군사적 대결을 감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10월 20일부터 1만여 명의 중국군 병력이 동부의 히말라야 산맥 일대, 서부의 라다크 지역에서 인도군을 전면 공격하기 시작했다. 인도가 국경 지역에서 도발을 반복하는 것에 맞서, 반격을 가한다는 명분을 내세운 것이다. 10월 25일까지 계속된 이 공격으로 중국군은 동부에서 맥마흔 선 이남의 거점인 타왕을 점령했고, 서부에서도 인도군이 구축한 16곳의 감시 초소들 가운데 11곳을 점령하는 승리를 거두었다.⁴²⁾ 중국은 공격의 성공 직후, 인도에 협상을 통한 국경 확정을 제안했지만, 오히려 인도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중국과의 무력 대결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이에 중국은 인도와의 전쟁에 병력 2만 명 이상을 추가 투입하여 병력 규모를 총 3만 5,000여명으로 증강하는 등 전투 재개에 대비했는데, 이는 당시 인도가 동원한 약 2만 6,000명의 병력보다 많은 수준이었다.⁴³⁾

이후 11월 14일 인도군이 동부에서 중국에 공세를 시도했지만 격퇴되었고, 오히려 이틀 후인 11월 16일부터 중국군이 인도군을 겨냥한 공세를 재개했다. 중국군이 3개 사단을 중심으로 병력을 편성, 투입했던 것과는 달리, 인도군은 주로 대대 및 여단급 부대로 분산된 채 배치되어 있었다. 이에 중국군은 병력 규모의 우세를 앞세워 인도군의 각 부대들을 포위, 우회하는 방식으로 격파하였다.⁴⁴⁾ 그리하여 중국군은

42) 국방군사연구소, 『中國人民解放軍史』, p.215.

43) 당시 중국이 인도와의 전쟁에 투입한 병력들은 대부분 티벳에서 배치 및 동원되었으며, 때문에 주요 전투가 벌어진 고산 지대에서의 작전 수행에 익숙했다. 서상문, 『중국의 국경전쟁 (1949~1979)』, pp.399~400.

44) 위의 글, pp.412~413.

11월 19일까지 다수의 인도군 부대를 섬멸, 패퇴시켰으며, 타왕보다도 이남에 위치하는 인도의 동북부 내륙 지역으로 진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중국은 11월 21일을 기하여, 인도에 투입된 병력 전체를 자국이 주장하는 1959년 11월 7일 기준의 동·서부 방어선으로부터 20km 후방으로 철수할 것이라는 내용의 휴전을 일방 선포했다. 이러한 중국의 결정은 ① 전세가 불리해진 인도가 미국에 군사 지원을 요청하면서 전쟁이 장기화될 위험 부담을 피하고, ② 인도에 대한 군사적 응징이 성공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공격 지속은 국제적인 비판을 야기할 수 있으며, ③ 시기적으로 겨울을 앞둔 상황이라서 장기간의 전쟁 수행이 어렵다는 점 등을 반영한 결과였다.⁴⁵⁾

중국은 1962년 10~11월에 벌어진 인도와의 국경 전쟁에서 군사적으로 명백한 승리를 거두었다. 2개월 동안의 전투로 인도군에게 전사 1,383명, 실종 1,696명의 피해를 입히고, 3,968명을 포로로 잡았으며, 다수의 무기를 노획했다.⁴⁶⁾ 뿐만 아니라 중국은 향후의 국경 분쟁에서 인도가 공세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견제 및 억지하고, 티벳에 대한 지배권을 기정사실화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정치·외교적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군사적 승리에도 불구하고 인도에게 자신들이 주장하는 국경선을 수용하도록 관철시키지 못했으며, 단지 국경 일대에서 잠정적인 완충 지대만을 확보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라. 중국·소련 국경 분쟁(1969년)

중국은 공산정권 수립 직후인 1950년 2월, 공산 진영의 맹주(盟主)인 소련과 『중소 우호동맹 상호원조 조약』(中蘇友好同盟互助條約)을

45) 위의 글, pp.432~433.

46) Wortzel, "China's Foreign Conflicts Since 1949," pp.276~277.

체결했다. 이를 통해 중국은 공산 진영의 일원으로서, 미국을 위시한 자유 진영 국가들과 정치·이념적으로 맞서는 ‘반(反)제국주의’ 노선을 추구할 것임을 천명했으며, 소련으로부터 경제와 군사, 과학기술 등의 여러 분야에서 지원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요시프 스탈린의 뒤를 이어 소련의 최고 지도자가 된 니키타 후루쇼프가 1956년 스탈린에 대한 격하(格下)를 본격화하고, 미국 등 자유 진영과의 평화적인 공존 가능성을 선언하자, 중국은 이를 ‘수정주의’(修正主義)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1950년대 이래 6.25 전쟁, 대만해협 분쟁 등으로 미국과 직접적인 군사 대립을 겪었던 중국에게, 소련의 대미(對美) 정책 전환은 자신들에 대한 전략적인 배신, 혹은 포위로 비춰졌던 것이다.⁴⁷⁾

이러한 수정주의 논쟁을 계기로, 중소 양국의 갈등은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소련은 1958년 대만과의 진먼다오 포격전을 비롯하여 중국이 개입한 주요 군사 분쟁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으며, 1960년에 이르러서는 중국에 파견했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귀국시키고, 중국과 체결했던 부문별 협력 사업들까지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이처럼 같은 공산 진영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소련은 1960년대 이래 사실상의 적대 관계로 돌아서게 되었다.

중국과 소련 사이의 정치·이념적인 대립이 격화되면서, 총 6,700km에 달하는 양국 국경에서의 영유권 분쟁이 직접적인 무력 충돌로 악화 및 확대될 가능성도 주목받기 시작했다. 특히 소련 극동과 중국 동북부 지역이 서로 인접하는 동부 우수리 강과 아무르 강 유역의 섬들, 그리고 신장 자치구 일대의 서부 국경 지대가 양국의 대표적인 군사 분쟁 지역으로 부각되었다. 소련은 1965년부터 4년 동안, 중국과의 국경 지대에 사단급 부대의 수를 13개에서 21개로 대폭 확충했고, 이에 맞서 중국도 국경수비대 소속의 병력을 빈번히 분쟁 대상 지역들로 투입해 소련군과 크고 작은 충돌을 일으켰다.⁴⁸⁾

47) 서진영, 『21세기 중국외교정책: ‘부강한 중국’과 한반도』, pp.196~197.

1968년 8월 소련이 체코슬로바키아의 정치적 자유화, 즉 '프라하의 봄'을 무력 침공으로 진압했다. 이 사건은 마오쩌둥을 비롯한 중국 공산정권의 지도부에도 큰 충격을 주었다. 소련의 선제공격에 의한 전쟁 가능성이 실재할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높아졌음을 의미했기 때문이다.⁴⁹⁾ 이에 중국은 소련과의 국경 분쟁이 전면 전쟁으로 확대, 악화될 가능성에 더욱 주목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중국은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지는 소련과의 무력 대결에서 스스로의 정치적 의지를 과시하고, 군사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리하여 중국은 소련에 대한 제한적·기습적인 국경 전투를 감행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1969년 1~2월 사이에 이에 필요한 준비를 본격화했다.⁵⁰⁾ 대상은 우수리 강 유역의 전바오다오(珍寶島, 소련명 '다만스키 섬')였다. 마침내 3월 2일 중국군은 전바오다오에서 국경을 순찰 하던 소련군에 습격을 가하였다. 당시 중국은 전바오다오에 대대급 병력을 투입했는데, 이는 소대 규모에 불과했던 소련의 국경수비대보다 수적으로 우세했다. 그 결과 중국군은 소련군에 전사 31명, 부상 14명 등의 피해를 입혔다.⁵¹⁾ 이 전투는 중국 공산정권이 수립된 1949년 이후, 중소 양국 사이에서 처음 발생한 정규전이었던 점에 큰 충격을 주었다.

뒤이어 중국군은 3월 15일에 연대급 규모의 보병과 이들을 지원할 포병, 박격포 부대를 추가 투입했다. 그러나 탱크, 장갑차, 다연장

48) 서상문, 『중국의 국경전쟁 (1949~1979)』, pp.496~497.

49) 위의 글, pp.509~510.

50) 당시 중국은 소련과의 국경 분쟁이 전면전쟁으로 확대,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대규모의 전쟁 물자 비축, 전쟁 지휘를 위한 지하 방공호 건설 등을 진행했다. 위의 글, pp.513~515.

51) 중국은 전바오다오에서 소련군에 가한 습격을 '소련 병사들이 국경에서 중국 병사들을 상대로 벌였던 다수의 유혈사건에 대한 반격, 응징'이라고 주장, 선전했다. 국방군사연구소, 『中國人民解放軍史』, p.219.

로켓포, 항공기 등의 우월한 화력을 앞세운 소련군의 공격으로 중국군은 1,000명에 가까운 사상자를 낸 채 전바오다오에서 패퇴했다. 이후에도 양국은 수개월 동안 군사적 대치 상태를 지속하며 충돌했는데, 특히 8월 13일에는 중국 서부 신장 자치구의 한 접경지대에서 중소 양국의 병력이 다시 전투를 벌였다. 이 전투에서도 소련군은 수십대의 탱크와 장갑차, 헬기 등이 제공하는 화력 우위를 바탕으로 보병들의 소총과 기관총이 고작이었던 중국의 국경수비 부대에 큰 피해를 입혔다.⁵²⁾

결국 중국과 소련은 1969년 9월을 기점으로 국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외교적인 논의에 착수했으며, 국경의 현상유지 및 무력충돌 방지 등의 필요성에 동의하였다.⁵³⁾ 이로써 양국은 국경 분쟁으로 인한 군사적 충돌이 대규모의 전쟁으로 확대, 악화될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당시 중국은 과거 한반도, 인도에서의 전쟁처럼 영토 주변에서 제한적인 수준의 군사 대결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과시하고, 이를 토대로 소련과의 정치·이념적 대립에서도 자국의 입장을 관철시키려 했다.⁵⁴⁾ 하지만 그러한 중국의 의도는 화력, 기동력 등에서 보다 우세한 군사력을 동원한 소련에 의해 분쇄되고 말았다. 요컨대 국경 분쟁에서 비롯된 1969년 소련과의 무력 대결은 명백히 중국의 군사적 실패였던 것이다.

마. 중국·베트남 전쟁(1979년)

중국은 1950년 호치민(胡志明)이 이끄는 베트남 민주공화국(통칭 북베트남)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150년대 프랑스와의 독립전쟁,

52) 위의 글, pp.219~221.

53) 이후 중국은 냉전이 종식된 2004년에야 아무르 강, 우수리 강 유역을 비롯한 러시아와의 국경 지대에서의 경계를 확정짓는 협정을 체결하여 그동안의 국경 분쟁을 종결했다. 신승하, 『당대중국: 중화인민공화국과 대만』, p.463.

54) 황병무, 『新中國軍事論』, pp.378~379.

1960~1970년대 미국과의 베트남전쟁에서 조건 없는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1975년 베트남이 공산화 통일을 맞이한 것을 계기로, 그동안 잠재되어 왔던 중국과 베트남 양국의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① 1,340여km에 달하는 양국간의 지상국경 획정, ② 남중국해에서의 도서 영유권 대립,⁵⁵⁾ ③ 베트남 내부의 중국계 화교(華僑)들에 대한 박해, 그리고 ④ 베트남의 친(親)소련 노선 강화에 따른 외교적인 대립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⁵⁶⁾

중국과 베트남의 관계가 악화된 결정적인 계기는 1978년 12월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이었다. 당시 캄보디아는 1975년부터 친(親)중국 성향의 '크메르 루주'(Khmer Rouge) 공산 정권이 집권 중이었는데, 지도자인 폴 포트(본명 살로스 사)는 1960년대 중국의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에서 착안한 극단적인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강요하며 100만명에 가까운 주민들을 인민재판, 고문, 강제노역 등으로 학살하였다. 이 과정에서 캄보디아 내부의 친(親)베트남 인사들까지 잔인하게 박해를 당하자, 베트남은 이를 구실로 25만명 규모의 병력으로 캄보디아를 침공했다. 그 결과 크메르 루주 정권은 1개월 만인 1979년 1월에 붕괴되었고, 캄보디아에는 베트남의 지지를 받는 괴뢰 정권이 들어섰다.

중국은 캄보디아 침공을 비롯하여 베트남이 1975년의 공산화 통일 이래 단행해 온 일련의 행보들이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협, 침해한다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온 캄보디아의 크메르 루주가 소련에 우호적인 베트남의 침공으로 붕괴되고, 동남

55) 중국은 베트남이 공산화 통일되기 1년 전인 1974년 1월에 서사군도(西沙群島)을 공격, 점령하여 실효 지배를 시작했다. 이후 중국과 베트남은 현재까지 서사군도에서의 영유권을 놓고 대립 중이다. Wortzel, "China's Foreign Conflicts Since 1949," pp.277~278.

56) 베트남은 1978년 소련과 『우호합작조약』을 체결하여 실질적인 군사 동맹관계를 맺었으며, 다수의 소련제 무기를 도입했다. 뿐만 아니라 1979년에는 과거 미국이 해군 기지로 사용했던 김란 만에 소련 해군의 군함들이 배치되기 시작했다. 소련 해군의 김란 만 주둔은 냉전이 종식된 1990년까지 계속되었다. 신승남, 『당대중국: 중화인민공화국과 대만』, p.531.

아시아에서 베트남의 세력이 강화된다면, 이는 곧 동남아시아에서 소련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져 중국에게도 직접적인 안보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논리였다.⁵⁷⁾ 말하자면 중국은 자신들과 직접 국경을 접한 베트남은 물론, 그 동맹인 소련에 대해서도 동남아시아에 대한 세력 확장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베트남과의 전쟁을 결정했던 것이다.

마침내 중국은 1979년 2월 17일부터 베트남에 대한 공격을 시작되었다. 중국은 5개 방향의 접근로를 중심으로 베트남과의 국경 일대를 전면 침공하였으며, 병력 규모는 총 12개 사단 소속의 약 15만명에 달하였다.⁵⁸⁾ 당시 중국은 수년 동안 계속되어 온 베트남과의 국경 분쟁에 대응하는 ‘자기 방어적인 반격’(對越自衛反擊戰), 혹은 ‘베트남에 대한 징벌’(對越南實行懲罰)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침공을 정당화하려 했다. 이에 베트남은 민병대, 국경수비대 등 정규군 이하 수준의 병력들을 주로 동원하여 중국과의 전쟁에 임하였다.

당초 중국은 베트남과 인접한 국경 지대들을 신속히 점령하고, 해당 지역에 위치하는 군사 시설들을 제거 및 파괴함은 물론, 베트남 정규군의 주력 부대들을 포착 및 섬멸하여 단기간 내에 결정적인 승리를 달성하려 했다. 하지만 중국군은 전쟁 초기부터 밀림과 산악 지형을 비롯한 험준한 지형들, 그리고 다수의 요새 및 함정들을 이용한 베트남군의 방어에 고전을 면치 못하였다. 중국은 전쟁 발생 약 10일째가 되던 2월 26일까지 베트남 내륙으로 16km를 진격했지만, 이 과정에서 1만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베트남군이 잃은 2,000~3,000명의 사상자보다 많은 수였다.⁵⁹⁾ 여기에 소련도 남중국해에

57) 권준문, “중국의 전쟁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중일전쟁을 중심으로,” 『軍史』, 제 82호, 2012, pp.314~316. <http://uci.or.kr/G704-001528.2012..82.007>

58) 서상문, 『중국의 국경전쟁 (1949~1979)』, p.692; Wortzel, “China’s Foreign Conflicts Since 1949,” p.279.

59) 서상문, 『중국의 국경전쟁 (1949~1979)』, p.703.

군함을 파견하여 베트남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준비했는데, 이는 중국이 베트남과의 전쟁을 지속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했다.

중국은 2월 말에 이르러 베트남 북부의 교통 거점지역인 란손에 병력을 집중 투입했는데, 3월 5일까지 이 지역의 베트남군을 섬멸하고 다수의 시설들을 파괴하는 데 성공하였다. 또한 중국군은 카오방, 라오카이 등 베트남 북부의 다른 거점 도시들도 함락 및 초토화했다. 당시까지 중국군은 베트남 국경으로부터 내륙으로 40km 이상을 진격한 상태였다. 그리고 중국은 란손 등의 베트남 북부 도시들을 점령한 3월 5일을 기하여 모든 병력을 베트남에서 철수할 것임을 발표했다.⁶⁰⁾ 이후 중국군은 3월 16일이 되어서야 베트남 영토에서 완전히 물러났다.

2주일 이상 계속된 베트남과의 전쟁에서, 중국군은 총 6만 3,000명 이상의 전사 및 부상자를 내었으며, 420대의 탱크·장갑차, 66문의 박격포·야포를 잃었다.⁶¹⁾ 한편 베트남군도 비슷한 수의 사상자를 잃었다. 그러나 당시 베트남이 다수의 정규군을 캄보디아 점령에 투입하여 중국과의 전쟁에서 주로 민병대를 동원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의 전쟁 수행은 결코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비록 외견상으로는 중국이 베트남 북부의 주요 도시들을 점령, 초토화하여 베트남을 '징벌'하는 데 성공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이는 수많은 인적, 물적 손실을 대가로 한 것이었다.

바. 대만해협 위기(1995~1996년)

1971년 10월 25일 『국제연합(이하 UN) 총회 결의안 2758호』(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2758)가 통과되면서 본토의 공산정권, 즉 중화인민공화국이 UN의 정식 회원국이자 안

60) 중국과 베트남은 냉전이 종식된 1991년에 외교 관계를 정상화했다. 위의 글, p.713.

61) 위의 글, p.719.

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되었으며, 동시에 대만의 중화민국 정부는 UN에서 축출되었다.⁶²⁾ 이는 국제사회가 본토의 공산정권에게 중국의 대표권이 있음을 공인한 것이었으며, 이를 계기로 중국과 대만 양안의 정치·외교적인 지위는 중국의 우위로 급격히 역전되었다. 20년 후인 1991년 4월에는 대만 정부가 “공산정권과의 ‘내란(內亂) 상태’가 종식되었으며, 공산당의 본토 지배를 인정한다”고 선언하여 국공내전의 종식 이후에도 40년 이상 지속되었던 본토 수복 노선을 공식적으로 폐기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중국, 대만 양안 사이에는 새로운 대립의 단초가 발생하게 되었다. 중국 본토의 공산정권이 ‘하나의 중국’(一個中國: One China) 원칙에 입각하여 대만이 자신들의 지배권 아래에 편입되는 방식의 통일을 주장, 요구하는 반면, 대만은 스스로를 중국과는 분리된 통치 영역에서, 별개의 정치, 경제, 사회 체제를 유지하는 동등한 정치적인 실체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1988년부터 대만 총통으로 재임 중이던 리덩후이(李登輝)는 대만 현지 주민 출신으로는 국공내전 이후 처음으로 집권한 인물이었으며, 이 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대만의 정치·외교적 독자성을 강조하고 나섰다.⁶³⁾

1995년에는 자주·독자적인 정치 실체로서 대만의 존재를 강조하려는 리덩후이의 행보가 더욱 강화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그해 6월 초 리덩후이의 미국 방문이었다.⁶⁴⁾ 명목상으로는 개인 자격으로 모교(母校)인 코넬 대학교를 방문하기 위해서였지만, 국공내전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대만 총통의 미국 방문이었다는 점에서 큰 정치·외교적인 파장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중국은 당시 리덩후이의 미국 방문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그에 입각한 통일을 거부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62) 신승하, 『당대중국: 중화인민공화국과 대만』, p.466.

63) 리덩후이는 장제스의 아들인 장징궈(蔣經國) 전임 총통이 집권했던 1984년부터 부총통으로 재임하다가 1988년 장징궈의 서거 직후 총통 권한대행으로 취임했으며, 1990년 정식으로 총통에 당선 및 취임했다.

64) 김영신, 『대만의 역사』(서울: 지영사, 2001), pp.327~330.

는 대만의 분리 독립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리덩후이의 미국 방문 1개월 후인 1995년 7월부터, 대만을 겨냥한 일련의 무력시위를 실시했다. 먼저 7월 21~28일 대만해협을 향해 다수의 중국 탄도미사일이 시험 발사되었다. 8월 15~25일에는 대만해협을 관할하는 중국 해군의 동해함대(東海艦隊)가 함포, 대함미사일 등의 실사격을 포함하는 해상 기동훈련을 실시했다. 그리고 11월 15~25일 사이에 푸젠 성 남부의 동산다오(東山島)에서 중국군의 합동 상륙훈련이 펼쳐졌다.⁶⁵⁾ 이를 통해 중국은 대만 내부에서 중국과의 통일을 거부하는 분리 독립 진영의 정치적인 입지를 약화시키고, 미국에 대해서도 대만이 정치·외교적인 독자성과 분리 독립을 추구하려는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하지만 이것으로 대만해협에서의 정치·군사적 위기가 끝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이듬해인 1996년 3월에 들어서면서, 중국은 대만을 겨냥하여 군사적인 강압의 수위를 더욱 높였다. 이 시기에는 대만 역사상 최초의 총통 직접선거가 예정되어 있었으며, 리덩후이 총통도 재선(再選)을 위해 출마한 상황이었다. 당시 중국은 3단계에 걸쳐 대만에의 군사적 강압을 실시했는데, 그 양상은 1년 전과 비슷했다. 먼저 1단계로 중국은 3월 8~15일 사이의 1주일 동안, 대만해협으로의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을 진행했다. 비록 실제 탄두가 장착된 것은 아니었지만, 당시 중국이 발사한 탄도미사일들은 대만의 대표적 항구인 남부의 가오슝(高雄), 북부의 지룽(基隆)으로부터 불과 30~50km 떨어진 해역까지 도달하여 대만에 큰 충격을 주었다.⁶⁶⁾

뒤이어 중국군은 2단계로 3월 12~20일 사이에 동·남중국해에서 해상 기동훈련을 실시했다. 여기에는 해군 전투함정뿐만 아니라, 다수의 공군 항공기들도 동원되었으며, 함포와 대함미사일 등의 실사격이 포함

65) 姚宏毅, “危機與武力使用: 1995-1996年臺海危機的再省思”, 『國防雜誌』第20卷第11期, 2005, p.10.

66) 위의 글, p.11.

되어 있었다. 특히 중국군의 해상 기동훈련 범위에는 대만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대만해협 중앙의 평후다오(澎湖島) 인근 해역까지 포함되었으며, 이 점에서 대만에 군사적 위기 인식을 고조시키기에 충분했다.⁶⁷⁾ 그리고 마지막 3단계로서, 중국군은 3월 18~25일에 이르러 푸젠 성 인근에서 육·해·공 3군 전력을 포함하는 합동 상륙훈련을 실행하였다. 대만의 총통 선거일인 3월 23일을 전후로 하여, 대만 영토를 직접 점령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대만해협에서의 정치·군사적인 긴장을 극대화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대만 총통 선거 결과는 과반수를 득표한 리덩후이의 승리였다. 이는 리덩후이 개인의 정치적 승리를 넘어, 대만인들 역시 중국의 군사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리덩후이가 주장하는 대만의 정치·외교적인 독자성 확보를 지지하고 있음을 명백히 드러낸 것이었다. 아울러 대만 총통 선거 당시, 미국은 2개의 해군 항공모함 전투단을 대만해협 인근 해역에 투입하여 중국의 군사적 활동을 견제했다.⁶⁸⁾ 이에 따라 중국이 실시한 일련의 군사적 강압은 대만을 직접 공격하거나, 대만 내부의 분리 독립 진영을 위축 및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4. 평가와 전망

가. 중국의 '적극방어' 는 과연 방어적인가?

지금까지 살펴본 중국의 대(對)주변국 군사 분쟁 사례들은 중국이 공산정권의 수립 이래 채택해 온 적극방어 군사전략이 실전에서 어떻게

67) Cole, *Taiwan's Security: History and Prospects*, p.29.

68) Douglas Porch, "The Taiwan Strait Crisis of 1996: Strategic Implications of the United States Navy", *Naval War College Review*, Vol. 52 No. 3, (1999), pp.20~21.

적용, 실행되어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들 사례를 통해 중국이 주변 국가들을 상대로 어떠한 조건에서, 무엇을 목적으로, 어떻게 군사력을 운용하는가에 대해 분석, 평가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먼저 중국은 자신들의 영토, 국민이 직접적인 공격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군사력을 동원,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 자국 영토의 주변에서 대규모의 정치·군사적인 분쟁, 불안정이 발생하여 자국에 비우호적인 세력이 등장 및 강화되거나, ② 국경 지대에서 주변 국가와의 분쟁이 반복 및 악화되고, ③ 대만과의 양안관계를 비롯하여 '하나의 중국' 원칙에 입각한 영토의 통일성이 위협받을 경우, 이를 자국의 안보에 대한 중대 위협으로 규정하여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⁶⁹⁾ 이는 상대방이 '정치·전략상의 제1격'(政治上,戰略上的“第一槍”)을 가하면, 이에 반격할 권리가 주어진다는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⁷⁰⁾

그 결과 중국의 적극방어 군사전략은 자신들보다 국력이 대등하거나 열세인 주변 국가뿐만 아니라, 국력이 우월한 강대국에 대해서도 스스로의 정치·외교적인 의지를 과시 및 관철시키고, 이를 뒷받침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스스로의 영토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자국의 안보에 불리한 전략적인 환경이 조성되는 것을 거부, 저지하기 위해서도, 타국의 비우호적인 정치·군사적 행동에 맞서 군사력으로 반격, 응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장래의 보다 큰 결전을 막기 위해, 현재의 작은 결전을 감수한다”는 논리로 요약될

69) 특히 중국은 대만이 통일을 거부하고 분리 독립을 시도할 경우, 군사력을 비롯한 비평화적 수단의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반복해 왔다. 지난 2005년 3월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제10기 3차 회의에서 통과된 『반(反)분열국가법』(反分裂國家法)은 대만의 분리 독립을 저지하기 위해 '비(非)평화적 방식의 필요 조치'(非和平方式及其他必要措施)를 동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彭光謙, 『中國國防』, pp.118~119.

70) 軍事科學院戰略研究部, 『戰略學』(北京: 軍事科學出版社, 2001), pp.453~454.

수 있다.⁷¹⁾

그렇다면 중국은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에서 적극방어 군사전략을 어떻게 적용, 실행해 왔는가? 첫째, 전쟁 수행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에 대한 선제공격뿐만 아니라, 적 영토로의 병력 동원, 전개를 비롯한 적극적·공세적인 조치를 강조한다. 이 점은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국경은 없어지고, 적이 쳐들어오면 우리도 쳐들어갈 수 있다.”(戰爭一旦打起來，就沒有國界了，你可以打進來，我也可以打出去)라는 마오쩌둥의 말에서도 드러난다.⁷²⁾ 동시에 중국은 이를 ‘적의 정치·전략상 제1격에 대응하는 자기 방어적인 반격’으로 주장, 선전하여 국내외적으로 자국의 군사 조치에 대한 정치·외교적인 정당성을 인정받는 데 주력한다.

당초 중국은 공산정권의 수립 초기인 1950년대 이래 미국, 소련 등 국력이 우월한 초강대국과의 대규모 전면 전쟁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왔으며, 이를 반영하여 과거 중일전쟁, 국공내전에서처럼 영토 내부로 적의 우세한 군사력을 유인한 후 장기간 항전하는 ‘유적심입’(誘敵深入) 개념을 적극방어와 함께 군사전략의 기본 원칙으로 유지해 왔다.⁷³⁾ 그러나 중국은 베트남과의 전쟁 이후인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 유적심입을 폐기하고, 적극방어만을 유지하도록 군사전략 원칙을 수정했다. 이는 마오쩌둥의 뒤를 이어 1970년대 말부터 중국의 최고지도자가 된 덩샤오핑(鄧小平)이 대외 문호개방 기조를 통한 경제개발, 국력 부흥을 추진하는 데 유리한 국내외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도를 반영한 결과였다.⁷⁴⁾ 그 결과 중국의 군사전략은 ‘적의 위협을 영토 밖에서 거부

71) 박창희, 『현대 중국 전략의 기원: 중국혁명전쟁부터 한국전쟁 개입까지』, p.298.

72) 胡哲峰, “建國以來若干軍事戰略方針探析,” p.23.

73) 심지어 중국은 1964년의 첫 핵실험을 계기로 핵무장에 성공한 후, ‘조기의, 대규모, 핵전쟁 수행’(早打, 大打, 打核戰)을 미국과 소련에 맞서는 전면 전쟁의 기조로 채택하였다. 이는 1980년대 초까지 유지되었다. 謝之鵬, “中共積極防禦軍事戰略發展與意涵,” p.36.

74) 덩샤오핑은 국공내전의 전환점 중 하나가 된 1948년 11월부터 1949년 1월까지

하고, 결정적으로 섬멸하는'(拒敵於外,遠決殲敵) 경향이 더욱 강화되었다.

둘째, 적 군사력의 신속하고 결정적인 분쇄, 섬멸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한다. 이를 위해 중국은 특정한 전투 공간 내에서 적을 압도할 수 있는 수준의 대규모 병력 동원, 그리고 유리한 장소와 시간에서 병력의 집중을 달성할 수 있는 기동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⁷⁵⁾ 이에 비하면 적 영토의 점령은 적의 군사력을 섬멸하고 난 후에 부수적으로 확보되는, 낮은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셋째, 전쟁을 수행하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목적에 제한을 가한다. 이는 ① 제한적·국지적인 범위 내에서 우세한 병력을 동원하여 신속하게, 결정적으로 군사적 승리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② 전쟁의 장기화에 따라 강대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거나, 국력을 지나치게 소모하여 전세가 불리하게 전환되는 것을 예방하며, ③ 자국의 전쟁 수행이 방어적인 목적을 위한 것임을 부각시켜 국내외에서 정치·외교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이 주변 국가와의 전쟁에서 적 군사력의 섬멸을 비롯한 군사적인 승리를 달성한 후, 타국 영토에서 자발적으로 병력을 철수했던 것도 이를 반영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중국의 적극방어 군사전략은 영토 주변에서 자국에 불리한 전략적 환경이 조성되는 것을 거부, 저지하는 목적을 추구하고, 타국의 정부를 타도, 제거하거나 영토를 항구적으로 점령 및 탈취하는 것을 지양한다는 점에서 외견상 방어적인 성격으로 여겨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의 '화이하이 전투'(淮海戰役)에서 공산군 제2야전군을 승리로 이끌어 군사적 명성을 얻은 바 있었다. 또한 1975년부터 5년 동안 중국군 총참모장으로 재임하며 1979년 베트남과의 전쟁을 지휘했으며, 1980년대에는 군 통수권자인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서 중국을 실질적으로 통치했다. 위의 글, pp.37~38.

75) 중국에서는 주로 전방에서의 정규군, 특히 보병 중심의 기동을 설명, 강조하기 위해 '운동전'(運動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는 ① 고착된 전선에서의 고정적인 방어를 위한 '진지전'(陣地戰), 그리고 ② 후방에서 적 병력을 교란하기 위한 비정규군 중심의 '유격전'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쓰인다. 황병무, 『新中國軍事論』, p.116.

그러나 자국의 영토, 국민이 직접적인 공격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타국을 겨냥하여 선제공격이나 노골적인 군사적 강압(예: 대규모 무력시위)을 불사하고, 우월한 규모의 병력을 앞세워 타국의 영토로 진격하며, 타국 병력의 섬멸을 지향하는 등의 공격적인 특징들도 분명 포함하고 있다. 중국 스스로의 입장에서는 이를 ‘방어’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중국과 정치·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주변 국가들에게는 일방적인 도발이나 전면 침략, 군사 개입을 비롯한 ‘공격’으로 인식될 여지가 충분하다.⁷⁶⁾

나. 중국의 군사력 강화와 ‘적극방어’에의 영향 전망

오늘날 중국은 적극방어가 여전히 자국의 군사전략에서 핵심 원칙임을 강조하고 있다. 2015년 5월 중국 정부가 발표한 『중국의 군사전략』(中國的軍事戰略) 백서에서 적극방어를 “중국 군사전략 사상의 기본 노선”(中國共產黨軍事戰略思想的基本點), “혁명전쟁 시대의 오랜 실천을 통해 완성된 일련의, 체계화된 군사전략사상”(在長期革命戰爭實踐中, 人民軍隊形成了一整套積極防禦戰略思想)으로 규정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⁷⁷⁾ 그러나 한편으로 중국은 국제정세, 혹은 군사기술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적극방어 군사전략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76) 미국 랜드(RAND) 연구소의 앤드류 스코벨은 적극방어 군사전략에서 나타나는 중국의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방어의 신화’(cult of defense)라고 규정한다. 이는 일반 국민과 지도층을 비롯한 중국인들이 자국은 평화 애호 세력이며, 자국의 군사력 사용은 오직 방어적인 목적만을 위한 정당한 수단이라는 신념을 공유하고 있다는 주장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 결과 스코벨은 이러한 ‘방어의 신화’가 중국이 주변 국가들을 상대로 공세적·비타협적인 대외정책을 추구하고, 그 과정에서 군사력의 사용을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Andrew Scobell, *China's Use of Military Force: Beyond the Great Wall and the Long March*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15; pp.27~32.

77) 張克名, “2015年中共《中國的軍事戰略》白皮書之戰略意涵”, 『戰略安全研析』, 第122期, (2015), p.43.

수정해 왔다.⁷⁸⁾

주지하듯이 중국 군사력의 발전은 이미 1990년대 이래 국제적인 주목, 경계를 받아왔다. 이제 중국의 군사력은 양적, 질적으로 명백히 아시아 최강으로 인정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강인 미국과 경쟁할 만큼의 수준으로 발전을 지속하고 있다.⁷⁹⁾ 이는 2010년대 초 집권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그를 위시한 중국의 공산당 및 정부 지도층들이 제시하는 소위 '중국의 꿈'(中國夢), 즉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中華民族偉大復興)으로 정의되는 중국의 세계적 강대국화를 뒷받침하는 데 군사력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⁸⁰⁾

이러한 중국의 군사력 발전 의지는 2015년의 『중국의 군사전략』 백서에서 제시된 각 군종별 발전 방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 따르면, 먼저 육군은 기존의 구역(區域) 방어형에서 전방위적(全域) 기동형으로 전환하여 입체공방(立體攻防) 능력을 구비하도록 발전시킨다. 또한 해군은 영토 주변의 근해(近海)를 방어하면서, 이를 영토에서 멀리 떨어진 원해(遠海)에서의 주요 이익 수호와 결합시킬 것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공군은 항공·우주공간의 일체화(空天一體)에 기반을 둔,

78) 1980년대 이후 중국의 군사전략 변화, 수정에 관해서는 성인모, “중국 인민해방군의 현대화와 전문화 추진,” 『전략연구』, 제62호, 2014, pp.39~43을 참고.

<http://uci.or.kr/G704-001467.2014.21.62.007>

79) 미 국방성도 2017년도판 『중국 군사력 보고서』(*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를 통해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는 ‘미국과 대등한 수준의 군사적 역량’ (a peer capability with the US military)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7* (Washington, D.C: Department of Defense, 2017), pp.38~39.

80) 시진핑은 2012년 11월에 공산당 총서기에 취임한 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부국(富國)과 강군(強軍)의 목표를 통합 추진해야 하고, 공고한 국방 및 강한 군대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군사력의 강화, 발전 의지를 반복해 왔다. 이는 ‘강군의 꿈’(強軍夢)으로도 불린다. 양정학, “시진핑의 국방 및 군대건설 사상에 관한 소고,” 『전략연구』, 제63호, 2014, pp.119~125. <http://uci.or.kr/G704-001467.2014.21.63.007>

공방겸비(攻防兼備)형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⁸¹⁾ 요컨대 보다 확대된 시·공간적 영역을 대상으로, 방어와 공격 능력을 함께 발휘할 수 있도록 군사력을 건설, 운용할 것임을 뜻한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특히 군 구조의 개편도 이러한 맥락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2016년 1월을 기하여 1985년부터 30년 동안 지속되어 온 7개 군구(軍區)를 5개(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의 전구(戰區)로 통폐합하였다.⁸²⁾ 이는 고정배치된 병력들이 각 지역을 경비하는, 육군 중심의 수비형 군사력을, 해·공군의 역할이 보다 강화된 합동(合同) 전력 중심의, 기동성이 높은 군사력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군사 분쟁에 더욱 신속하고 공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중국이 영토 방위를 넘어, 주변 국가들과의 정치·군사적 경쟁에서 우위를 추구하기 위한 공격적인 목적으로 군사력의 건설, 운용을 발전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결과 중국은 스스로의 안전, 발전과 직결되는 소위 ‘핵심이익’(核心利益: core interests)의 수호를 명분으로, 과거보다 공세적이고 강경한 대외 정책노선을 취하며, 그 과정에서 군사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⁸³⁾ 이는 중국이 2010년대에 들어선 최근

81) 葛惠敏, “解析中共2015年《中國的軍事戰略》白皮書,” 『國防雜誌』, 第30卷 第6期, 2015, p.95.

82) 아울러 중국은 제2포병(第二炮兵)으로 불려져 온 지상 공격용 탄도·순항미사일 부대를 ‘로켓군’(火箭軍)으로 승격시켜 육·해·공군과 동격의 지위를 갖도록 하였다. 그리고 우주, 사이버스페이스를 대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전략지원부대’(戰略支援部隊)도 창설했다. 구자선, “중국 국방·군 개혁 현황 및 전망: 조직 구조를 중심으로,” 『주요국제문제분석』, No. 2016-53, 2016, pp.11~16.

83) 중국은 핵심이익을 ‘국가의 존망에 관련되어 거래, 양도할 수 없는 중대한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주권(國家主權), 국가안전(國家安全), 영토의 완전성 유지(領土完整), 대만과의 국가통일(國家統一), 공산당 1당 지배로 대표되는 중국 특유의 정치·사회 제도에 관한 안정(國家政治制度和社會大局穩定), 그리고 경제 및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기반 보장(經濟社會可持續發展的基本保障) 등을 포함한다. 이민규, “중국의 국가핵심이익 시기별 외연

수년 동안, 주변 국가들에 대한 군사적인 강압의 빈도, 강도를 증대시키고 있는 추세에서도 잘 나타난다. 먼저 일본 방위성의 2017년도 판 『방위백서』(防衛白書)에 따르면, 중국은 센카쿠 열도(尖閣諸島, 중국명 '다오위타오'(釣魚島))에 대한 일본과의 분쟁이 악화된 2012년을 기점으로 동중국해 일대에서의 해상, 공중 활동을 현저히 강화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 보기로 중국은 2014~2016년 사이의 3년 동안, 해경(海警) 경비함정들을 연평균 34건 이상 센카쿠 열도 인근 해역에 투입했다. 또한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중국 공군의 방공식별구역 침범으로 긴급 출격하는 사례는 2011년 156건이었지만, 이듬해인 2012년에는 중일 양국의 센카쿠 열도 분쟁 악화로 2배에 가까운 306건으로 급증했다. 가장 최근인 2016년에는 무려 851건(즉, 하루 평균 약 2.3건)에 달하여 5년 만에 약 5.5배 수준으로 늘어났다.⁸⁴⁾

대만 국방부도 2017년 12월에 발간한 최신판 『국방보고서』(國防報告書)를 통해 중국이 2016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최근 17개월 동안 대만해협과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 본토로부터 약 200해리 내외의 서태평양 일대 해역에서 해·공군력을 앞세운 다수의 무력시위를 실시했음을 적시(揭示)했다. 구체적으로는 ① 핵무기 및 공대지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H-6 전략폭격기와 정찰기, 전투기 등을 포함한 군용기의 왕복 초계비행을 26차례 수행했으며, ② 항공모함 '랴오닝'(遼寧, 배수량 약 5만톤)을 중심으로 하는 해군 기동부대의 장거리 항해도 4차례 있었다.⁸⁵⁾ 이러한 중국의 행태는 시진핑이 공산당 총서기에 취임한 직

확대 특징과 구체적인 이슈," 『中蘇研究』, 제41권 제1호, 2017, pp.56~64. <http://uci.or.kr/G901:A-0008742136>

84) 중일 양국의 대립은 2012년 일본 정부가 센카쿠 열도의 국유화 방침을 결정하고, 이에 중국도 센카쿠 열도를 기점으로 하는 12해리 영해 기선을 선언한 것을 계기로 악화되었다. 防衛省·自衛隊 編, 『日本の防衛: 防衛白書 平成 29年』(東京: 防衛省, 2017), pp.339~341.

85) 중국 해군 최초의 항공모함인 랴오닝은 우크라이나에서 고철로 인수한 구 소련의 미완성 항공모함을 복원, 개조하는 방식으로 2012년에 취역했다. 이어 중국은 2017년 4월 랴오닝을 모방하여 독자적으로 설계, 건조한 2번째 항공모함도

후인 2013년 1월 28일의 공산당 중앙정치국 제3차 집체학습에서 밝힌 “우리는 평화적인 발전의 길을 견지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정당한 권익을 포기하거나, 국가의 핵심이익을 희생시키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我們要堅持走和平發展道路, 但決不能放棄我們的正當權益, 決不能犧牲國家核心利益。), “어떠한 외국도 우리가 핵심이익을 놓고 타협하거나, ‘국가 주권과 안전, 그리고 발전이익’의 손해를 감수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된다”(任何外國不要指望我們會拿自己的核心利益做交易, 不要指望我們會吞下損害我國主權、安全、發展利益的苦果。)라는 입장을 군사력으로 뒷받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⁸⁶⁾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볼 때, 중국의 군사력 강화와 발전은 앞으로 중국이 적극방어 군사전략을 실행, 적용할 수 있는 지리적·전략적인 범위를 더욱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다시 말해서 중국이 단순히 기존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유지, 방어하는 것을 넘어,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질서를 자국의 이익에 유리하게끔 변경시키려는 공격적인 목적으로도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임을 의미한다.

5. 결 론

중국은 지난 1949년 공산정권이 수립된 이후, 7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대내외적으로 수많은 부침(浮沈)을 겪어왔으며, 이들을 극복하면서 오늘날 전세계가 인정하는 강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여기에는 한반도와 대만, 인도, 소련, 베트남 등 주변 국가들을 상대로 발생했던

진수시켰다. 中華民國106年國防報告書編纂委員會, 『中華民國106年國防報告書』(臺北: 國防部, 2017), p.38.

86) 한승호, “中 시진핑 “국가 핵심이익에 거래는 없다.” 『연합뉴스』, 2013년 1월 29일.

다수의 전쟁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중국은 이들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극방어로 불리는 자신들의 독특한 군사전략을 실행, 적용하였다. 그리고 적극방어는 오늘날까지 중국 군사전략의 핵심 원칙으로서 발전적으로 유지, 계승되고 있다.

중국의 적극방어 군사전략은 20세기 전반기에 마오쩌둥을 위시한 초기 공산당 지도부가 중일전쟁, 국공내전을 비롯한 혁명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해 입증해낸 군사상의 경험, 전방위적으로 다수의 국가들과 국경을 인접하는 중국 특유의 지정학적 환경 등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전통적으로 중국은 자신들의 적극방어가 상대방의 위협이 발생한 후에야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방어적인 성격의 군사전략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의 적극방어 군사전략은 전쟁 수행에서 반격의 중요성, 각 전투 공간에서의 제한적·국지적인 세력 우위, 적 병력에 대한 섬멸 등과 같은 공격적인 특징을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국은 자신들의 영토, 국민들이 직접적인 공격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도, 타국의 영토에 대규모의 군사력을 투입하여 전쟁을 수행하는 사례를 반복해 왔다. 다시 말해서 자국 영토 주변에서 비우호적인 외교·군사적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을 근거로, 타국에 대해 선제 공격과 군사 개입 등을 감행했던 것이 그동안 중국이 주변 국가들과 벌였던 전쟁의 실상이었다. 요컨대 중국의 적극방어 군사전략은 자국에 불리한 전략적 변화를 거부, 저지하는 목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방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를 실제 전쟁에서 수행하는 방식은 다분히 공격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중국이 아시아 최강, 더 나아가 초강대국인 미국과 대등한 경쟁을 추구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군사력을 성장 및 발전시키고 있는 현재의 추세를 고려하면, 적극방어에 입각한 중국의 군사전략 수행 능력도 그에 비례하여 지리적·기능적으로 더욱 확대, 강화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이는 중국이 주변 국가들과의 정치·외교적 대립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군사력의 시위, 사용을 더욱 적극화할 가능성을 높이고, 그만큼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질서에 불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⁸⁷⁾ 이 점에서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은 중국의 군사력 강화, 발전이 적극방어 군사전략의 수행 능력 향상에 미칠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18. 1. 6, 심사수정일 : 2018. 2. 14, 게재확정일 : 2018. 2. 22)

주제어 : 중국의 군사력, 적극방어, 마오쩌둥, 현대 중국의 역사, 중국과 국제분쟁

87) 이상국, “시진핑 시기 중국의 ‘강군몽’ (强军梦) 구상과 군사안보적 함의,” 『국방정책연구』, 제31권 제3호, 2015, p.30. <http://uci.or.kr/G704-001646.2015.31.3.001>

〈참 고 문 헌〉

- 구자선, “중국 국방·군 개혁 현황 및 전망: 조직 구조를 중심으로”, 『주요 국제 문제분석』, No. 2016-53, 2016.
- 국방군사연구소, 『中國軍事思想史』,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6a.
- _____, 『中共軍의 戰略戰術 變遷史』,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6b.
- _____, 『中國人民解放軍史』,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8.
- 권준문, “중국의 전쟁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중월전쟁을 중심으로”, 『軍史』, 제82호, 2012. <http://uci.or.kr/G704-001528.2012..82.007>
- 김영신, 『대만의 역사』, 서울: 지영사, 2001.
- 김재철, “중국의 공세적 외교정책”, 『한국과 국제정치』 제28권 제4호, 2012. <http://uci.or.kr/G704-000296.2012.28.4.007>
- 박동찬 편저, 『한권으로 읽는 6.25 전쟁』,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6.
- 박창희,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 결정과 군사전략 목표”, 『軍史』, 제48호, 2003. <http://uci.or.kr/G704-001528.2003..48.002>
- _____, 『현대 중국 전략의 기원: 중국혁명전쟁부터 한국전쟁 개입까지』, 서울: 플래닛미디어, 2011.
- _____, 『중국의 전략문화 : 전통과 근대의 부조화』, 파주: 한올아카데미, 2015.
- 서상문, “중국 國·共내전시기 金門전투와 그 역사적 의의”, 『中國近現代 史研究』, 제22집, 2004. <http://uci.or.kr/G704-001440.2004..22.004>
- _____, 『중국의 국경전쟁 (1949~1979)』,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3.
- 서진영, 『21세기 중국외교정책: ‘부강한 중국’과 한반도』, 서울: 폴리테이 아, 2006.
- 성인모, “중국 인민해방군의 현대화와 전문화 추진”, 『전략연구』, 제62호, 2014. <http://uci.or.kr/G704-001467.2014.21.62.007>
- 신승하, 『당대중국: 중화인민공화국과 대만』, 서울: 대명출판사, 2006.
- 양정화, “시진핑의 국방 및 군대건설 사상에 관한 소고”, 『전략연구』, 제63호, 2014. <http://uci.or.kr/G704-001467.2014.21.63.007>

- 이규원, “중국의 대만 도서지역 포격사건에 대한 미국의 억제전략 분석”, 『국방정책연구』, 제27권 제2호, 2011.
<http://uci.or.kr/G704-001646.2011.27.2.001>
- 이민규, “중국의 국가핵심이의 시기별 외연 확대 특징과 구체적인 이슈”, 『中蘇研究』, 제41권 제1호, 2017.
<http://uci.or.kr/G901:A-0008742136>
- 이상국, “시진핑 시기 중국의 ‘강군몽’(强军梦) 구상과 군사안보적 함의”, 『국방정책연구』, 제31권 제3호, 2015.
<http://uci.or.kr/G704-001646.2015.31.3.001>
- 한승호, “中 시진핑 “국가 핵심이익에 거래는 없다”, 『연합뉴스』, 2013년 1월 29일.
- 황병무, 『新中國軍事論』, 서울: 법문사, 1992.

- 中華民國106年國防報告書編纂委員會, 『中華民國106年國防報告書』, 臺北: 國防部, 2017.
- 防衛省・自衛隊 編, 『日本の防衛: 防衛白書 平成 29年』, 東京: 防衛省, 2017.
- 軍事科學院戰略研究部, 『戰略學』, 北京: 軍事科學出版社, 2001.
- 姚宏毅, “危機與武力使用: 1995-1996年臺海危機的再省思”, 『國防雜誌』, 第20卷 第11期, 2005.
- 胡哲峰, “建國以來若干軍事戰略方針探析”, 『當代中國史研究』, 第7卷 第4期, 2000.
- 張克名, “2015年中共《中國的軍事戰略》白皮書之戰略意涵”, 『戰略安全研析』, 第122期, 2015.
- 張萬年, 『當代世界軍事與中國國防』, 北京: 軍事科學出版社, 2002.
- 彭光謙, 『中國國防』, 北京: 五洲傳真出版社, 2004.
- 葛惠敏, “解析中共2015年《中國的軍事戰略》白皮書”, 『國防雜誌』, 第30卷 第6期, 2015.
- 謝之鵬, “中共積極防禦軍事戰略發展與意涵”, 『陸軍學術雙月刊』, 第52卷 第549期, 2016.

嚴紀民, “回顧八二三砲戰堅苦卓絕的教戰精神 開啟兩岸和平的新世紀”, 『陸軍學術雙月刊』, 第45卷 第506期, 2009.

Cole, Bernard D., *Taiwan's Security: History and Prospects*, London, UK: Routledge, 2006.

IISS, *Military Balance 2018*, Abingdon, UK: Routledge, 2018.

Johnston, Alastair Iain, “China's 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 Behaviour 1949–1992: A First Cut at the Data”, *China quarterly*, No. 153, 1998.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7*, Washington, D.C: Department of Defense, 2017.

Porch, Douglas, “The Taiwan Strait Crisis of 1996: Strategic Implications of the United States Navy”, *Naval War College Review*, Vol. 52 No. 3, 1999.

Scobell, Andrew, *China's Use of Military Force: Beyond the Great Wall and the Long March*,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Swaine, Michael D. and Ashley J. Tellis, *Interpreting China's Grand Strategy: Past, Present, and Future*, Santa Monica, CA: RAND, 2000.

Wortzel, Larry M., “China's Foreign Conflicts Since 1949,” in David A. Graff and Robin Higham eds, *A Military History of China*, Lexington, KY: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2012.

<Abstract>

The Implementation of ‘Active Defense’ Military Strategy in the Conduct of War of China: Focused on Cases of Military Conflicts with Its Neighboring Powers

Kim, Jae-yeop

Since the establishment of communist regime in 1949, China has maintained “active defense” military strategy. China's active defense strategy was developed from 1) military experiences of Revolutionary War including Sino-Japanese War and Chinese Civil War, led by Chinese Communist Party's early leadership of Mao Zedong, and 2) China's unique geopolitical environment. China asserts that its active defense strategy is a military one of defensive character, which uses military power passively only after hostile powers pose threats to its national security. However, the history of China's military conflicts with its neighboring powers such as Korean Peninsula, Taiwan, India, Soviet Union, and Vietnam, after communist regime was established, shows that China's active defense strategy includes a number of offensive characteristics; preemptive attack, projecting military power to hostile territory, in pursuit of annihilating hostile troops, unilateral military coercion etc.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pay a sharp attention to China's ongoing development of military power, which can strengthen its capability to carry out active defense strategy more effectively and eventually support China to adopt a more offensive foreign policy doctrine in the future.

Key Words : Military Power of China, Active Defense Strategy, Mao Zedong, History of contemporary China, China and International Conflicts